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7. 10. 22 ~ 2017. 11. 4 제170호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북한,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강화돼

감시인원을 2명에서 7명으로... “지인과 친척도 포섭”

최근 북한 당국이 탈북자의 남겨진 가족들의 이탈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공안기관의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데일리엔케이(NK)가 보도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일부 배신자가 남조선(한국) 텔레비전에서 우리(북한)에 대한 중상모략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들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면서 “보통 2명이 교대로 감시를 했는데, 지금은 같은 시간대에도 여러 명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인원을 7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의 한 탈북 가정에 최근 담당 보위원과 보안원(경찰)이 동시에 방문해서 느닷없이 술판을 벌였고, 취중에 “감시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시간대에 들이닥치는 이런 일도 발생한 것”이라는 말도 흘렸다고 한다. 이런 말은 시장을 통해 퍼졌고 북한 당국은 의도적으로 소문을 막지 않았다.

또 소식통은 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지적하며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주변의 가까운 지인 혹은 친척을 포섭해 감시인원을 구축하는데 이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응에 대해 소식통은 “공작원을 많이 만들어 내는 모습에서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부 주민들은 ‘매일 감시를 해보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감시 자체를 비웃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탈북자 가족이 당국의 조사와 압박이 거세지면서 뇌물로 탈북자를 사망처리 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NPNEWS]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의 말이니라(예레미야 1:19)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체제를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이들과 북한에 남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구원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영원한 구원을 취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 르완다에서

주인의 손에 의해 그 자리에서 똑딱 만들어진 색색의 신발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쌍쌍이 놓인 이 신발들은 어떤 삶을 견게 될까? 깨끗한 대리석을 걸을 수도, 먼지 가득한 흙길을 달릴 수도 있다. 편하고 험하게 다루어진 신발은 금방 닳을 것이고, 조심해서 귀하게 신은 신발은 제 모양을 조금 더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신을 신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만드셨다. 서로 다른 인생들의 수많은 걸음을 위하여 친히 신을 준비해 주셨다. 색깔과 모양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발걸음을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친히 주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여정을 즐겁고 기쁘게 걸어간다. [GNPNEWS]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에베소서 6:14~16)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5)

누가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겠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누가 김소월의 시에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베토벤의 작품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당신에게는요? 당연히 손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기에,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손상되어서도 안 되고, 손상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인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못나 보이고, 부족하기만 하고, 어설피고, 그럴 때마다 숨고 싶고 비참한 것은 왜 일까요? 만드신 분이 ‘좋다!’라고 인정하신 완전한 작품이란 사실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당신과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며 왕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모든 불행이 시

작했습니다. 만드신 분의 매뉴얼을 벗어나는 것은 고장난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고장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에서 한참 벗어난 당신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아야 할 당신 대신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다시 당신을 만지십니다. 재창조하기 위한 비용을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장 난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디자인 하셨던 완전한 작품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자신을 자학하지 마



일러스트= 김경선

십시오.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속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장난 자신의 상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잃어버렸던 당신의 원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한국	에이즈 환자 한국만 증가세... 세계는 감소 추세	2면
기획	기독교인들이 로힝야 사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면
인터뷰	김영목 장로-김경숙 집사 부부 “돈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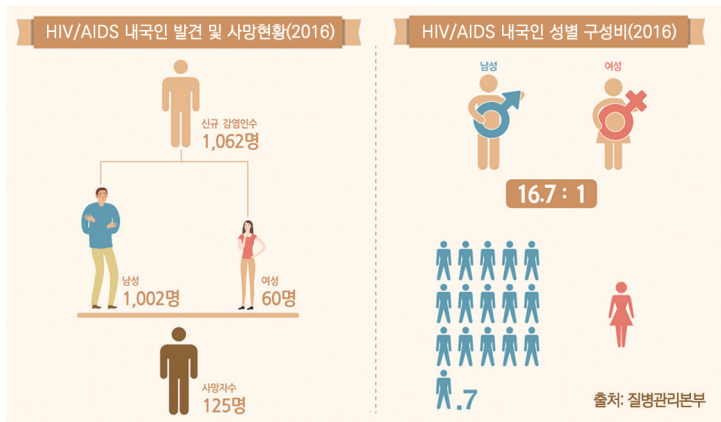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에이즈 환자, 한국만 증가세... 세계는 감소추세

대부분 남성 10·20대 환자, 동성애가 주원인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15년 200여만 명(추정치)으로 2000년(310

만 명) 대비 35%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2016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1062명으로 2000년(219명)에 비해 26%나 증가했다.

특히 10·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남성의 경우 2006년 12명에서 2016년 33명으로 늘었으며 20대 남성군에서도 149명에서 지난해

35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최근 발표한 '2016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에이즈 감염자 1062명(내국인 기준) 가운데 남자는 1002명으로 여자(60명)의 16.7배에 달했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유포되기 때문이다. 의학전문가 등에 따르면 남성들의 에이즈 발병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주로 항문을 활용한 성관계 때문으로 항문은 점액 분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나 마찰에 약해 상처가 나기 쉬우며 이를 통해 유두종 바이러스, 암, 에이즈 및 기타 성병이 전염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년)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밝혔다. [GNPNEWS]

유럽

그리스, 성전환 수술 없는 법적 남녀전환 허용

그리스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성(性)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권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새 법안은 의회 300석 중 찬성 171표를 얻어 통과됐다.

기존에는 서류상 성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정신적으로 '성별 정체성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받은 후,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친 동성애자 단체들은 기존 법안을 시대착오적이며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관행이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그리스 정교회와 우파 정치인들은 새 법안을 반대하며 철학을 요구했다. 정교회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관습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국내에서도 최근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채 신청한 성별전환을 법적으로 허용



▶ 그리스 아테네 의회(출처: usnews 캡처)

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처럼 성전환수술 없이 남자가 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 남성이 임신했다고 밝히며 사회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GNPNEWS]

세계

이슬람, 국교 채택국 많고...기독교, 전 세계의 종교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많은 반면, 고르게 선호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퓨 리서치는 조사대상 199개국 중 40% 이상의 국가가 국교나 공식 종교를 가졌으며, 이중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27개국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기독교를 공식 종교라고 답한 국가는 13개국(30%)에 불과했다. 불교는 2개국, 유대교는 1개국으로 집계됐다. 기독교를 공식 종교라고 발표한

9개국은 덴마크, 모나코, 아이슬란드, 영국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었으며, 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코스타리카였으며, 태평양에서는 투발루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가 유일하게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다.

국교는 없으나 선호하는 종교가 있는 나라는 40개국으로 그중 기독교를 선호하는 나라는 28개국(70%)에 이르렀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로는 베트남, 북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쿠바, 타

지키스탄 등 10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퓨 리서치는 "중국은 공산당이 엄격하게 종교기관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심지어 종교를 이유로 적대적인 국가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 10개국 중 일부는 과거에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독립 후에도 종교에 적대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세계 106개국은 공식적으로 국교가 없거나 선호하는 종교가 없으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2~10.15)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최악의 산불... 최소 29명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역에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9명 사망, 400여 명이 실종됐다고 1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 산불로 수십 명의 주민이 다쳤고 2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건물 3500여 채가 전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속되는 악재로 심령이 가난해진 미국의 고통당한 자들의 마음을 참된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순교하겠다는 ISIS 조직원들 항복한 뒤 목숨 구걸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1일 이후 이라크 쿠르드 정부에 항복한 죄수 1000여 명이 "항복하느니 순교자로 남겠다."고 맹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목숨을 구걸하는 이들만 있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주님, 진심으로 고백한 신념이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ISIS의 만행은 너무 크지만 이들을 위해 준비해놓으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들려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 서울 겨냥해 핵무기 한 발 쏘면 약 78만 명 사망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맞선 미국의 '군사적 옵션' 거론으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서울을 조준, 250kt(킬로톤) 위력의 핵무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 한발로 약 78만 명의 사망자와 277만 명의 부상자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를 인용해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여, 이 땅의 어떤 지혜로도 북한의 완강함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일의 허락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카탈루냐 "90% 독립 찬성" vs 스페인 "투표 인정 못해"

1일(현지시간) 종료된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독립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치 정부와 스페인 중앙 정부가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자치 정부 측은 찬성이 90% 이상 되면 분리독립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지만 스페인 정부는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넘은 결과를 볼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십시오. 어떤 결정도 스페인과 카탈루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들을 깨우쳐주시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0월 23일 ~ 11월 4일

10월 23일~28일	10월 30일~11월 4일
▶경기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010-7791-4384	10.30~31, 11.2~3(매일 10시~12시)
10.23~24, 26~27(매일 10시~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0.30~11.3(매일 14~19시)
10.23~27(매일 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11.2(06-12시)
10.26(06-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1.3(08시~20시)
10.27(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1.3(22시)~4(22시)
10.27(22시)~28(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11.4(06시~18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로힝야 사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 족을 위한 난민 수용소(출처: Opendoorusa 캡처)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org)가 최근 기독교평론가 존 스톤스 트리트의 '박해받는 무슬림을 왜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요약이다. <편집자> 우리는 종교적인 박해를 생각할 때, 대체로 중동지역을 기억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박해 상황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범죄에 관한 국제연구소(ISCI, International State Crime Initiative)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 족은 집단학살의 마지막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집단학살의 정확한 정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끔찍한 인권유린이고 인도주의의 대재앙이다. 그것은 종교 때문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 중 한 모습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로힝야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미얀마를 마치 네덜란드와 같은 단일 민족국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얀마에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8개의 주요 소수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4개의 다른 주요 어족들(language families)에 속한 언어로 대화한다. 압도적인 다수의 미얀마 국민들이 최소한 명목상 불교도인데 반해 몇몇 '국내 소수

인종'은 주로 기독교인들이다. 로힝야 족은 그러나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1982년 이래 미얀마 정부가 인정해온 주요 '소수 인종' 중의 하나가 아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로힝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미얀마 정부가 소수의 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 오픈도어는 미얀마의 종교박해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람보, 미얀마 기독교인 구출 그린 영화

미얀마의 소수 종교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단체가 오픈도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얀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믿기 어렵겠지만 2008년 실베스터 스탤론이 주연한 영화 '람보(Rambo)'의 주제



▶ 미얀마 군과 싸우는 람보(출처: 영화 람보 시리즈 4 캡처)

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람보는 가상의 한 미얀마 기독교인 그룹을 구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종교자유회의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서 미얀마의 소수 기독교인의 숨겨진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어려움에는 차별, 강제 대화, 폭력, 교회와 기독교공동체 모독이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의 박해받는 소수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국민이어서 미얀마 안에서 살 수는 있다. 그러나 로힝야족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그들이 그 땅을 떠나게 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로힝야족인 소수의 무장 세력을 제압해왔다. 최근 미얀마 정부의 일제단속 이전에도 이미 로힝야족은 계속 미얀마를 탈출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수는 1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모습은 그들이 탈출한 곳에서도 여전했다. 안전하다고 여긴 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인신매매범에게 붙들리기도 하고 성매매업자들에 잡히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토마스 리즈 위원장은 기독교인이 관심을

갖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말했다. "로힝야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종교적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미얀마에서 종교 자유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

기독교가 종교 민족주의 피해자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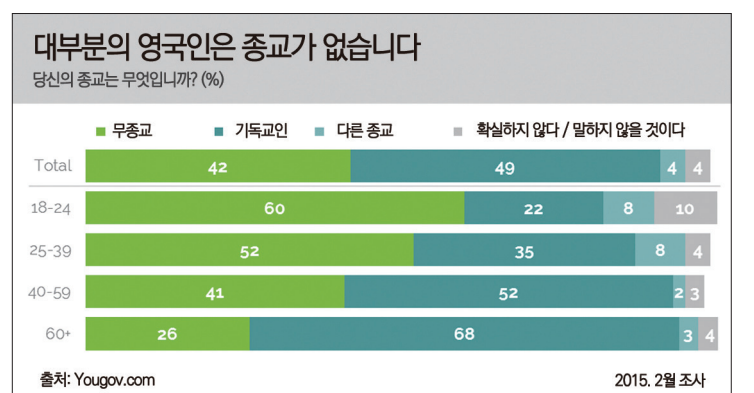
더욱이 이들 두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박해는 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민족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지지하는 세력은 무장 불교 승려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불교 세력의 이 같은 지위는 미얀마에만 그치지 않는다.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부탄,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에서는 불교와 함께 힌두교가 그들의 합법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 기독교와 이슬람은 반드시 억눌려야 할 '외래종교'로 여기고 있다. 로힝야 사태에서 피해자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종교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래에 기독교인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NPNEWS] 번역. 국제팀

영국인들 "진화론이 불완전해도 창조론을 거부한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최근 영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진화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다음은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포함 하더라도 전체 인구 중 10% 미만의 영국인들만이 성경적 기반의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최근에는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조론 믿는다' 10% 미만 그러나 19%에 이르는 영국의 신앙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거나 혹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29%의 신앙인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국 내에서 진화론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일치가 일어났다. 영국 내의 상당수의 무종교인들이나 심지어는 무신론

자들도 진화가 인간 본성이 가진 영적인 측면이라 불리는 기원과 인간 의식의 발전에 관해서는 만족할만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영국과학 페스티벌에서 사회의 지식과 신념에 관한 '과학의 중심'지가 실시한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과학과 종교: 템플턴 종교와 믿음이 지원한 폭넓은 탐색'으로 명명된 광범위한 국제 조사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4천 명이 넘는 영국과 캐나다의 성인들이 이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 71%의 영국인들과 60%의 캐나다인 응답자들은 종의 기원에 의한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 9%에 불과한 영국인들과 15%에 달하는 캐나다인들이 성경적 창조론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퓨 리서치 설문에서 34%의 미국인들이 인간이 처음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해왔다고 답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 64%의 영국 성인들은 개인적

신념으로 진화론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성인들의 경우, 50%가 그러하다고 답했다. • 다소 적은 숫자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화론을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시키기가 쉽다고 밝혔다: 53%의 영국인과 41%의 캐나다인들 • 5명 중 한 명의 영국인은 무신론자이며 3명 중 1명 이상의 캐나다인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진화의 과정은 인간의 의식의 실재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 10%의 무신론자 영국인들과 31%의 캐나다인 무신론자들도 또한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화론 믿는다' 71% 이번 연구 책임연구원이자 '과학과 연구: 스포츠팀 프로젝트의 탐색'의 감독자인 편 엘스돈 베이커는 이번 조사 결과, 새롭게 밝혀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진화론에 관한 생각이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우리는 인간의 기원과 의식에 관한 설명을 기반으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이 회의적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이는 인간의 진화라는 측면에 관한 불확실성이 굳이 '신앙 vs 진화론'의 이슈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엇이 인간이 되기 위한 요건인지와 인간의 경험에 관한 전지구적 의문점들에 대한 쟁점은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관하여 근본적인 도전이 된다." 이 설문자료는 개인이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으로 해석하여 받아들

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것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이 다른 과학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문점들에 대한 해석과 어떠한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유대인, 힌두교인과 불교인 및 시크교 신자들을 포함한 결과이다. 한편, 2014년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19%의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설문 추출 방법에 기인한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10% 정도 낮아진 것이다. [GNPNEWS] 번역.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9) - 전라북도 편

군산과 익산의 3.1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군산 구암교회와 3.1운동

군산 선창가에서 구암으로 이사했던 군산선교부에서는 1902년 전킨 선교사의 사랑채에서 군산 영명학교가 시작됐다. 다시 여학생을 중심으로 멜본디여학교도 설립됐다. 이 두 학교가 설립되면서 구암교회에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민족교육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군산지역 3.1운동의 주역이었다. 당시군산 구암동에서 일제시대였던 1919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나흘 뒤인 3월 5일 한강 이남 최초로 항일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됐다. 구암교회 장로이자 영명학교 교사였던 박연세가 세브란스의전에서 유학 중이던 영명학교 출신 제자 김병수를 통해 독립선언문을 받

입하고 시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영명학교 기숙사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 그러나 시위 예정일의 전날인 3월 5일 발각되어 박연세 장로가 연행되자 이 모습을 본 영명학교와 멜본디여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했다. 구암교회 교인, 궁밀 예수병원 사무원, 군산시민들이 가세해 총 28회의 항일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사망 53명, 실종 72명 등 희생자가 발생했다. 3월 30일에는 1천여 명이 등불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그 후 박연세 장로는 목사가 되어 목포양동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익산 최초의 남전교회

1896년 군산에서 장을 보고 오던 송원선과 강문성은 전킨 목사를 만나 전도를 받았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당시 송지동에 거주하던 문학선의 방 하나를 빌려 송지동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최치국 등 다수의 신자들이 협력하여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01년에는 익산시 오산



▶ 익산 남전교회의 결혼식(출처: sotongsinmun.com 캡처)

면의 남전교회가, 1903년에는 봉남면 대송리의 대송교회가 차례로 송지동교회에서 분립해 나갔다. 당회장은 군산 선교부의 전킨 목사와 불(W. F. Bull) 목사가 차례로 맡았다. 남전교회는 1900년 봄에 시작됐다. 원래 남전리 사람들은 군산 구암교회와 김제 송지동교회를 다녔는데, 그 해에 남전리 이윤국의 집에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 당시 이름은 남차문교회였다. 그들은 1901년 초가 5칸의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어 남자소학교인 도남학교를 운영하면서 동네 아이들

을 가르쳤다. 후에 여자소학교인 미성학교, 남녀소학교를 합병한 신성학교를 설립하여 복음전파와 교육에 힘썼다. 1919년 4월 4일 익산 송리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바로 남전교회의 교인들과 도남학교의 학생들이었다.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를 비롯 남전교회의 주축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사람들에게 나눠줄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그렸다. 그들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흰 옷을 입고 장날인 4일 정오경에 시장에 모이게 했다. 만세대열은 순

식간에 1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시위대는 송리장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일제헌병대가 시위를 강제 진압하며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등이 현장에서 희생됐다.

서두교회, 황등교회

이밖에도 1898년 정정보라는 전도인이 삼기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출발한 서두교회, 평양에서 기성의원을 운영하던 계원식 장로 병원에서 1922년 출발한 황등교회가 익산지역에 있다. 특히 삼기면의 서두교회는 익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이다. 삼기는 백제 불교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으로 기독교로 개종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서두교회 교인들은 이리 지방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날 때 참여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신사참배 반대 저항 운동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라북도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의미>(2012)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9. 21 ~ 10. 11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고재욱 김민성 김성훈 김승수 김애심 김유남 김지현 김혜신 박숙자 박승은 안민자 안수경 안현숙 오대현 오성애 이관영 이복길 이순이윤정 이정숙 이정희 이준진 이한철 장미자 장진 정해월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형광 주유순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사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시은좌교회 양덕원김리교회 열매교회 예성선교센터 은혜선일교회 은혜의샘교회 전주순우리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춘천행시바교회 하나님보시기에종았더라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선교 통신

말라리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된 번역사업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우리의 삶을 낙망하게 만드는 일들은 여러 이유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낙망함과 불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는 참 오랜만에 말라리아에 걸려 투병을 했습니다. 일정 중에 저의 온 뼈마디가 쭉시고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16년 이상 이곳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말라리아라는 자가 진단을 내리고 약을 구입해 3일 동안 복용했습니다. 며칠간 고열과 오한으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 만에 몸이 회복되어가는데 아내가 다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었을 때에야 비로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본지 자료사진

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돌 다 쓰러져 시간을 보내면서 몇 해 동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지냈던 시간에 대한 감사를 늦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몸이 따라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우기가 되면 김을 매느라 풀과의 전쟁으로 손과 발에 굳은살이 박히고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우기에 마을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바르마어 문법 정리와 야곱 이야기 번역을 위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기 동안 오전 아랍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으로 따지면 컴퓨터 작업이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밭에 나가 김을 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노동이지만 아내는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오고 또 눈도 많이 피곤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시간의 길이가 반드시 결과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수렁에 빠져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수험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의 삶에도 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우기철에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일생에 대한 성경 번역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펼쳐지는 속임과 배신, 도망, 그리고 자신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풀기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러한 사건들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번역을 마친 아브라함 이야기는 토니라는 친구가 통로가 되어 지금은 C 국의 국영방송을 통해 15분씩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르마어로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바르마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을 얻는 자가 더욱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GNPNEWS]

C국= K.S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돈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을 선하게 돌보고 계신다. 우리로서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에 녹여진 증인들을 만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게 된 한 부부의 인생을 통해 세월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다.

-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영목(이하 목) : “저는 30대 초반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었죠. 교회 내에서 단기간에 재정부, 건축, 선교 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을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보니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죠. 나중에는 제 결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는 열심이 없다며 정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짓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달러를 허비하느냐?’고 막 나무랐어요. 국내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해외에서 하는 건 정말 이해를 못 했어요. 성경을 아예 몰랐던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도 거룩한척 하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제 삶에서는 죄가 떠나지 않았죠.”

김경숙(이하 숙) :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정말 그렇게만 믿고 살았어요. 교회를 처음 나갈 때부터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닐 만큼 정말 열심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큰 애가 4살, 작은 애가 2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잘되 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네, 동생네 할 것 없이 친척들까지 모두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없으셨나요?

목 : “그런 상태였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잘 되

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쏟아부으시는 것만 같아 마냥 좋았죠. 사실 저는 예수님을 그저 외국 배우 알듯이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자였는데도 말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제가 회개하고 돌이지 않으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98년도에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고, 너무 잘 되던 사업체에 받아놓았던 어음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돈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큰 빚까지 지게 되었죠.”

하루 아침에 망하다

숙 : “집이 너무 어렵게 되자 생계를 위해 저는 일본에 가서 얼마 동안 돈을 벌었어요. 당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집에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 감당하기 힘든 시기였겠네요.

숙 :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엄마는 강하니깐요.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뭐라도 해야 했죠. 길거리로 나갔고, 파지와 빈 병을 줍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얼마 동안은 주운 물건들을 파는 법도 몰라서 150원에 팔아도 되는 것들을 70원에 한참 동안 팔기도 했어요.”

목 : “그런 일을 하는 게 처음에는 ‘잘 살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하며 너무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잠시 들었죠.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교회에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 곳을 이사하면서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나갔어요. 신기하죠. 그 정도가 되면 방탕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였죠.”

숙 :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갔죠. 주위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살 것 먼저 준비해놓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빚부터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갚아 나가다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은 빚을 다 갚았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김영목 장로·김경숙 집사 부부(열매교회)

주님이 하셨죠. 사람들은 저희가 계속 일을 했다니까 부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전세 100만 원 걸 돈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복음을 만나고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정을 비축해 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자는 것인데요. 지금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주위에 다 흘러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목 : “요즘은 섬유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남은 폐섬유를 받아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병과 파지를 줍고 다니다가 이곳저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의 소개로 하게 된 일이지요. 기계를 사서 하는 방법도, 어디에 어떻게 팔면 되는지 다 그분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었어요. 주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이죠.”

재정을 모으지 않고 흘러 보내

- 그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목 : “돌이켜보면 제 삶에 모든 과정이 복음으로 나아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녀들을 통해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저는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갈급함이 없던 저에게 복음은 오히려 저를 진정으로 믿게 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급함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 진짜 생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그날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화려한 삶을 살았을

때보다 세상적으로는 망한 것 같은 지금 훨씬 더 큰 행복을 느껴요. 생활은 분명히 어렵고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정말 복음으로 마음껏 자유하니까 훨씬 기쁘죠.”

숙 : “망한 게 너무 은혜예요. 망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못 만났을 테니까요. 몇십 년을 정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것들은 저에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부자 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혹은 주셔도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그 친척들이 이제는 저희를 보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목 :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된 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훈련을 받고 또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늦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막 부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 ‘이 땅에서 죽으나 선교지에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 구태여 내가 한국에서 죽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저희가 모셔야 할 부모님 두 분이 계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5월과 6월에 한 분

씩 소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터를 두지 않고, 주님 부르신 어떤 곳이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용돈도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됐죠.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거구나.’ 하고요.”

숙 : “작년 12월에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로 선교아웃리치를 갈 때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그 무렵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웃리치를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죠. 남편 장로님이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고요. 아웃리치를 갔다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당시에는 별 일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저희 부부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기 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생기는 목마름

-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숙 :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그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 가끔씩 아이들이 길거리에 같이 일하러 나갔거든요. 파지와 병을 줍는 일이지요. 그때 저희 아들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엄마, 나는 제일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 커서 실패를 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아이들이 저희를 부끄러워 할까 봐 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직업이 재활용과 관계된 일이라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 자신을 서울에 유학까지 보낸 게 대단한 거라면서 당당해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둘째 딸은 선교사로 헌신했고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 마지막으로 신문 독자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목 : “복음을 믿고 달려가는 길에도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느 순간에 계속 찾아오기도 하고요.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로렘나무 아래 (2)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존재적인 죄인의 실상이 역사 가운데 충분히 드러났던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 엘리야라도 낙심시킬 만큼 절망적이었다. 로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원기를 회복한 후 다다른 호렘 산의 굴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왕상 19:10)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악은 더 창궐할 뿐,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고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낙심과 두려움만 가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

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상 19:15~16)

주님이 외면하시고 거들떠보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지독히 외로워하며 로렘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호렘 산의 굴속에 은둔한 채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은 지쳐 무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전까지 상실해 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지독하게 외로운 시간이든, 쏟아진 물처럼 스스로를 추스를 수 없는 형편이든, 아무런 희망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다.

범죄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있던 비참한 죄인 아담, 그가 숨어 있던 그 자리는 추악한 죄악과 흑암의 자리이자 배신의 자리였다. 하지만 그런 아담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던 디베라 바닷가, 그 곳엔 배신한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주님이 몇 차례나 예고하셨던 부활의 메시지를 까마득히 잊은 채 이전 삶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구할 수도, 부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곳이라도 주님은 찾아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비록 땅끝에 있을지라도 찾아내신다.(사 43:5~7)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실패와 타협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두려



일러스트= 임아람

워했지만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주님만큼 ‘교회’인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다. 주님은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 어서 안 되는 자리에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떠나야 한다! 두려움, 무력감, 비전을 상실한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짓누르는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가? 복음을 운명으로 받긴 했으나 믿음의 자리에서 슬쩍 물러나, 믿음의 도전은 포기한 채 은둔하며, 적당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굴속에 숨어 있는가?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길을 돌이키라! (2016. 7. 메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내가 굶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뜯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_김정화 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19,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일어나는 삶”

믿음을 어느 쪽으로 드릴 것인가에 모든 것이 걸려 있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필요해요. 제 삶에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말씀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 계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입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제 영혼을 지켜주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막 성질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읊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게 돼요.”

속 : “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늘 묵상해요. 이런 말씀이면 정말 충분하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까요. 정말 요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마음은 부자예요.”

목 :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저런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져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을 꽤 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지고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GNPNEWS]



▶ 영국 아웃리치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은혜의 시간

나는 매일 하루 동안 4가지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중에 하나가 한 명 이상에게 복음기도신문이나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내와 여섯 살, 세 살 난 두 딸과 집에서 가까운 마트를 향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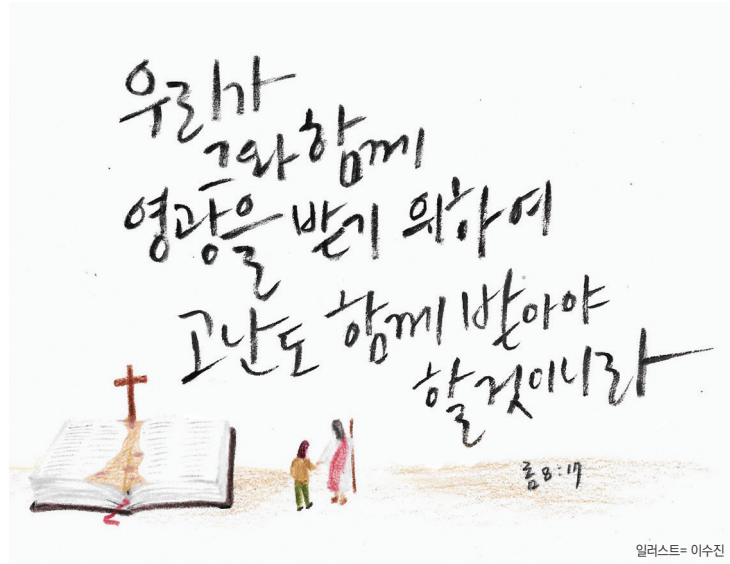
전도하다 만난 아저씨의 반응

마트에 다다라 입구 쪽에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에게 신문을 전해주었다. 순간, 귀찮은 듯 거부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외 마디라도 외친 다음 마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던 아저씨.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불쑥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 “내가 그렇게 멍하게 보이냐? 나 불교 신자야! 당신은 이스라엘 역사만 알지, 한국 역사는 알아?” 이러저러한 말로 고함을 지르며 나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 이 모습을 고스

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내와 아이들은 어찌할 바 몰랐다. 아저씨는 계속 “나 S대 나왔어! ○○○ 교수 알아? 영어 할 줄 알아? 역사

하려고 시늉할 때는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이 놀랐다.

시간이 좀 지나자 아저씨는 조금 진정이 되었고, 나 또한 주님이 마



를 알아야지! 청일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등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인격적인 대화는커녕 이리다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가 손과 발을 들어 구타

음을 지켜주셔서 특별한 사고 없이 그 자리를 떠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았던 첫째 딸은 모든 사건이 끝나고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인 내가 고향치는 아저씨

에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무척 무서웠을 것 같았다. 많이 무서웠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딸.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복음을 전하면 환영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싫어해서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옆에 있던 아내도 딸에게 알아듣도록 더 설명해 주었다.

핍박받을 준비가 아직은 안 되었는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처럼 때 맞고, 구타당함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허락된 순간이었다.

지켜보던 딸은 끝내 울음 터뜨려

그러나 며칠 뒤, 나는 그곳에 다시 가기 두려웠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 아프리카로 간 아웃리치에서 한 교회를 방문하며 들었던 선교사님의 나눔이 생각났다. 현지인에게 피습을 당하여 머리, 얼굴, 가슴, 팔 등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다쳐 한국에 나와 대수술을 하셔야 했었던 목사님. 다시 선교지로 가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할 때, 그곳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어 다시 선교지로 오게 되었다는 나눔이었다.

이번 전도를 통해 겪었던 일과 그 나눔이 생각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전도현장에서 더욱 돌파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웠던 이 시간을 통해 복음과 한 운명된 것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고 싶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GNPNEWS]

이준동 선교사(복음기도신학교)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여인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남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손을 들고, 때로는 선교단체로 연락을 해 온다. 그들은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북한을 사랑한다. 그러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준비된 때에” 라면서 미룬다.

기도 중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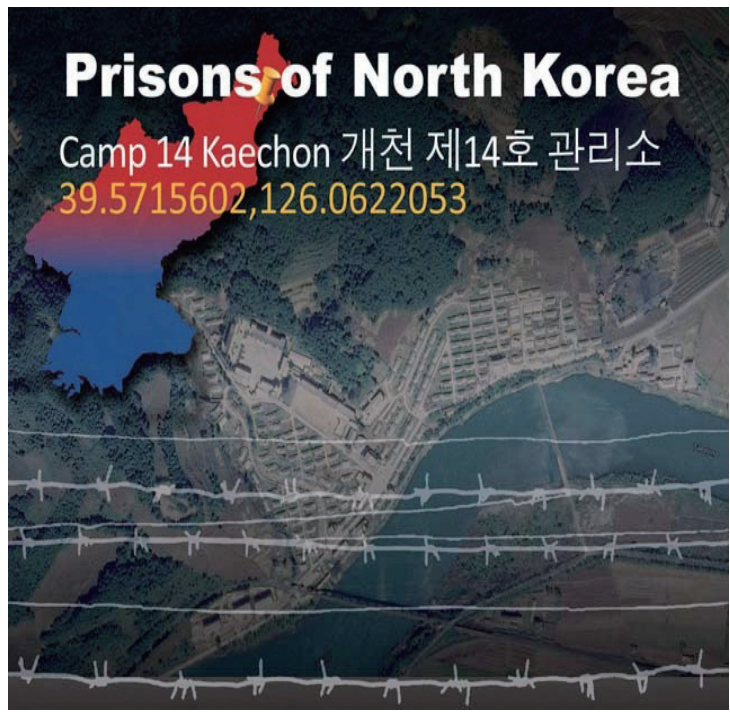
여기 한 증인의 이야기가 있다. 중국으로 탈북한 성주(가명)는 기도 중에 “옥수수가 자라나거든 북조선으로 돌아가라.”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인은 한마디로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옥수수가 자라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옥수수가 자라기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간 읽어왔던 성경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 시작하더니, 조금 후에는 마치 방언이 쏟아져 나오듯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나왔다. 한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되었다. 성주가 만일 중국에 남아 사역을 계속한다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생활비도 생기고 인정도 받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일들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오직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끝까지 순종한 여인

성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들을 마다하고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북한에 돌아간다고 해도 죄는 감해될 수 있으나 최소 몇 주, 혹은 몇 달은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 감옥에서는 굶주리고 매 맞는 일이 허다하고, 심하면 희롱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성주는 북한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옥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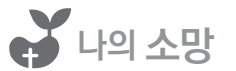
▶ 북한의 제14 개천 정치범 수용소(출처: 미국 국무부 캡처)

이라는 소망이 있다. 한 성도의 헌신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이 말씀은 바로 성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발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기쁨이여 오라”

인디언의 사도로 불렸던 존 엘리엇. 청교도인 그는 미국 ‘원주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인디언 피쿼트족의 언어를 배워 1646년 10월 처음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심방을 다녔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인디언들은 ‘기도하는 인디언들’로 세간에 알려졌다.

유목 생활을 하고 문자가 없으며 부족마다 언어가 다른 인디언들을 복음화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전역에 ‘기도하는 인디언 마을’을 세웠으며 런던에 세워진 인디언 대학과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인디언 문자를 고안해 ‘알콩신 어’로 친구약 전체를 번역했다. 86년을 향유한 그는 “나는 지금 본향으로 갑니다. 기쁨이여 어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다. [GNPNEW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다시 복음앞에’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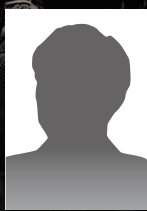
to the GOSPEL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로마서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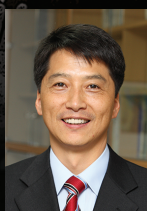
‘오직 믿음으로’

2011 다시복음앞에 ‘오직 복음으로’
2013 다시복음앞에 ‘오직 성경으로’
2015 다시복음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16 금식기도성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강사진 | (무순)



P,A,I 지역 선교사



이재만 교수
(창조과학선교회)



이태희 목사
(그안예전리교회)



김정화 선교사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박종진 선교사
(헤브론선교대학)



조완순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민경동 장로
(전 에스라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황중부 목사
(남서울교회)



김용의 선교사
(LOG Mission)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배철희 목사
(중신감리교회)



하도균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2017. 10.31-11.03

장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주 제 : ‘오직 믿음’ (로마서 1:17)

주관.주최 : 복음기도동맹

참가비 : 현금

참가신청 : 온라인(www.gpally.org)접수
(선착순 마감)

문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10-5938-4641

070-5056-3208

이메일 gpall@daum.net

